

2000

디자인진흥원사

- 제10대 정경원 원장 취임
- 디자인디비닷컴(designdb.com) 오픈
- 중국 베이징 산업디자인진흥원(BIDPO), 이탈리아 디자인협회, 프랑스산업 디자인진흥청과 업무협정 체결
- 디자인혁신센터(DIC) 설립 (부산, 경기, 광주, 대전)
- 2001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식 개최
- 2000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개최
- ASEMIII 개최기념 특별전시회 (세계 청소년 디자인대전 Designit, Digital Korea 등) 개최
- 밀레니엄디자인어워드 2000 개최

한국 디자인사

- 디자인전문인력 병역 특례 허용
-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과 신설
- SBS 디자인 특집 방영
- 신문박물관 개관
- LG전자 디자이너 출신 부사장 선임(김철호)
- 삼성물산 래미안 브랜드 론칭
- 뉴틸리티 창립

한국 사회사

-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 서해대교 개통
-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 디자인사이드 개시
- 미디어시티 서울 개최

세계 디자인계 화합의 장:
어울림

밀레니엄을 맞아 한국 디자인계는 연이어 열린 국제적인 디자인 행사로 들뜬 분위기였다. 2000년 열린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 Millennium Congress)와 2001년 열린 세계산업디자인대회(ICSID 2001 SEOUL)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행사를 주최하는 ‘세계그래픽디자인협의회(ICOGRADA, 현 ico-D)’는 세계 각국의 시각 디자인 단체들과 기구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국제 민간 조직으로, 1963년 4월 런던에서 설립되었다. 그래픽 디자이너 및 관련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단체로, KIDP는 1972년에 가입하였다.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는 디자이너들의 국제적인 연대와 정보 교환을 위해 열리는 행사로, 1964년 취리히에서 첫 행사를 가진 뒤 2년마다 세계 각지의 도시에서 열려왔다. 그러나 서울 코엑스에서 2000년 10월에 열린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는 이런 관례를 깨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특별 대회의 형태로 열렸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열린 대회답게 ‘큰 조화’를 뜻하는 ‘어울림’이라는 주제 아래 10월 24일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3일간 50여 명의 디자이너, 철학자, 경영자, 문화 행동가, 예술가들의 강연과 전시가 이어졌다. 25일 첫째 날 주제는 ‘동양, 서양’, 둘째



1



2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 Millennium Congress) 행사 포스터

날 주제는 ‘인간, 기술, 자연’, 셋째 날 주제는 ‘과거, 현재, 미래’였다. 세계 18개국에서 초청된 40여 명의 강연자를 비롯해 내외국인 1,500명이 참여한 이 대회는 홍익대 문화벨트에서 마지막 날 열린 ‘디자인스 테크노 나이트’에서 다양한 기원 굿과 공연, 패션쇼, 참가자와 일반 시민이 어우러진 거리 축제로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정부와 기업, 행사 주체와의 원활한 협력, 규모, 참여 인원, 강연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1년에는 서울과 성남에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디자인계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축제인 세계산업디자인대회가 열렸다. 세계 산업디자인계를 대표하는 비영리 국제단체인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현 WDO)에서 주최하는 세계산업디자인대회는 ‘디자인올림픽’ 또는 ‘디자인 선진국 진입을 위한 통과 의례’로 여겨지는 행사다. 195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데, 일본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서울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주제는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찾아서, 어울림 (Exploring Emerging Design Paradigm, Oullim)’이었다. 컨퍼런스와 ‘2001 서울 디자인 현장’, ‘디자인포럼’ 등의 콩그레스 이벤트와 함께, 《굿디자인페스티벌》, 《20세기 디자인전》, 《어울림 디자인잇》, 《ICSID 회원전》 등의 전시, ‘국제디자인워크숍’과 ‘ICSID/AM-COM’ 등의 특별 행사가 열렸으며, 조화와 융합의 미를 강조하는 ‘어울림’을 화두로 모든 참가자가 21세기의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00년과 2001년 국제적인 두 행사를 모두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 디자인 무대에서 그 위상을 떨쳤으며, 동시에 세계에 한국의 디자인 역량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두 대회를 모두 아우른 ‘어울림’은 새천년을 맞아 한국적인 사유로부터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의 이념을 이끌어냄으로써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주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